

보도 자료	자료제공	자료제공일
	민주동덕 제57대 총학생회 나란	2024.11.20.(수)

## 2024 학생총회 후속 보도자료

- 2024 학생총회 개요

- 일시: 2024년 11월 20일 14시 45분
- 장소: 동덕여자대학교 월곡캠퍼스 운동장
- 주최/주관: 민주동덕 제57대 총학생회 '나란'
- 참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 비표: 2024 민주동덕 학생총회

- 행사순서:

1. 개회 선언
2. 안건 1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해설
3. 질의응답
4. 의결
5. 안건 2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직선제' 해설
6. 질의응답
7. 의결
8. 폐회 선언

- 오늘 진행된 학생총회에서는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과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직선제 안건에 따른 해설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각 안건에 따른 의결을 진행하였다. 참석인원은 대략 2000명 내외였으며 본회의 성원인 6544명 중 3분의 1을 훌쩍 넘는 인원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 첫 번째 안건은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이다. 11월 7일 교내 커뮤니티에 동덕여대 공학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학생들은 여자대학 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공학 전환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학교가 아닌 소식으로 접하고, 대학본부의 면담 거절과 변명만을 듣게 되었다. 교내에 앞서 존재하는 전임교원 부족, 시설 노후화, 불통행정 등의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며 내놓은 공학전환이라는 안건에 학생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본 회에 상정하였다.
- 첫 번째 안건인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은 참석인원 1973명 중 찬성 0명, 반대 197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으며, 본교 공학전환에 있어 다수의 학생이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두 번째 안건은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직선제'이다. 2010년부터 본교의 총장은 완전 임명제로 선출되며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투표권이 없으며 오로지 이사회의 임명으로 총장이 선출된다. 학교 대표는 총장이고 학생 대표는 총학생회장단이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 대표자가 면담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학교

대표의 입장을 표명해달라 요구해도, 학생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는 총장은 필요 없다. 이에 우리 대학의 대표자인 총장을 학생이 뽑을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상정하였다.

- 두 번째 안건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직선제’는 참석인원 1933명 중 찬성 19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매년 총장직선제를 외치는 학생의 의견이 학교에 전달되길 바란다.
- 본 회의에서 결정되는 안을 가지고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처장단 면담에 참여하여 학생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오늘 결정된 바를 이뤄내고자 한다.
- 향후 계획은 추후 총학생회 나란 인스타그램과 총력대응위원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계속 공개될 예정이다.
- 문의: @dongduk\_chonghak (총학생회 나란 인스타그램)/ddwu57th.naran@gmail.com(총학생회 나란 메일)

## 학생총회 안전 해설 전문

### 1.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

11월 7일 학내에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에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고, 대학본부는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을 꾸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에 대해 논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먼저 동덕여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포털 공지사항에 올라온 입장문입니다.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은 대학의 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적인 연구팀으로 2024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회의에서 본교의 경쟁력 및 향후 발전방향을 토의하였으며, 대학 특성화 부문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진행된 1차 회의 이후 11월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해당 특성화 단과대학에서 소속 교수진과 논의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2차 회의에서는 특성화 부문 단과대학 발전방안 VISION 2040(안)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으며, 이때 해당 단과대학 공학 전환 방안에 대한 위원간 토의가 이뤄지고 동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대학본부는 추후 논의사항을 총장님 및 교무 위원 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사항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학생은 교수님께 공학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시 듣게 되었으며, 또 다른 학생은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서 위 소식을 접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자대학 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공학 전환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학교가 아닌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글로 먼저 접하게 되었고, 대학본부의 계속되는 면담 거절에 황당하였으며, 총장의 입장문에 적힌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다”라는 변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이라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은 도대체 언제 이뤄집니까? 교강사가 없어 수강신청을 하는 동안 내 수업을 누가 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임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교원 충원을 요구했을 때, 대학 본부는 무전공을 도입했으며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고, 소수의 학생들로 이뤄진 학과의 경우 학생이 많지 않다며 교원 충원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일축했습니다. 예지관 복도의 천장이 부서지고, 공부하는 공간에서 물이 수도 없이 새고 있었으며, 학생이 미래를 펼쳐나갈 과방과 회실이 없음에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로 증설해 줄 수 없음을 단언했습니다.

대학 본부는 공학 전환에 대해 대학혁신비전추진단을 꾸려 논의하는 과정과 학생과 논의하려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대학본부가 공학전환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길 기다렸습니다. 본 회의에서 결정되는 공학전환 안을 가지고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처장단 면담에 참여하여 학생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오늘 결정된 바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 2. 총장직선제 안건 해설

2010년부터 본교의 총장은 완전 임명제로 선출됩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투표권이 없으며 오로지 이사회의 임명으로 총장이 선출됩니다. 우리 대학 전반의 결정권을 갖는 대표자인 총장을 학사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이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적인 대학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윤영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93개 사립 일반대 중 57개 대학(61.3%)이 법인에서 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박경미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138개 사립대학 중 99개 대학(72%)에서 완전임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방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교원 부족, 시설 노후화 등 대학이 지닌 여러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에서 '임명되는 총장'이 과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의문입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도 총장은 처장단의 뒤에 숨어 '비통하다'라는 의견만 내 비친 채 학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학생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대표는 총장이고 학생 대표는 총학생회장단이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생 대표자가 면담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학교 대표의 입장을 표명해달라 요구하여도 어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총장이라는 지위에 올라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고 수렴해야하는 이가 선출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총장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며 우리 대학의 대표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학생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안을 가지고 내일 처장단 면담에서 학생이 원하는 바를 전달할 예정입니다.